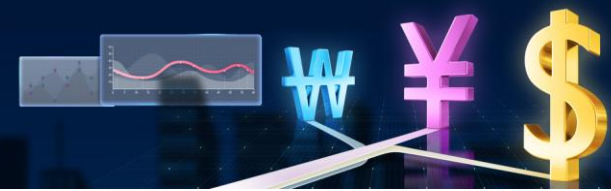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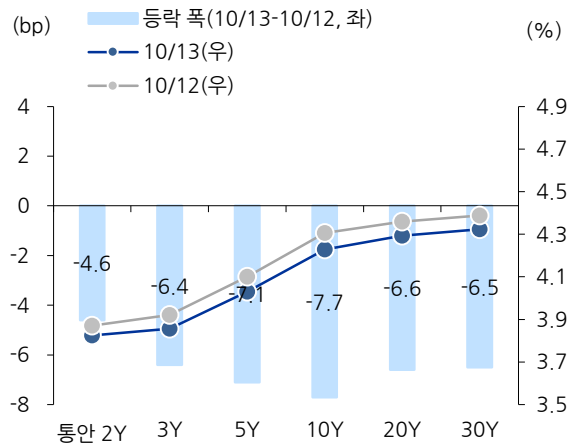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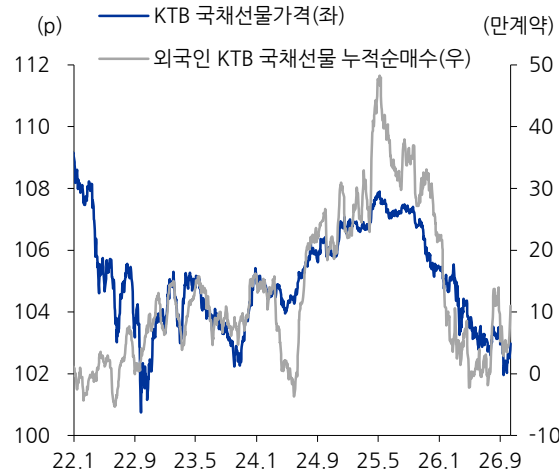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0/13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857%	-6.4	-8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229%	-7.7	-13.6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37.2	38.5	42.8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2.98	21.0	34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6.04	63.0	120.0
	미국채 2년물	4.793%	0.3	-2.0
	미국채 10년물	5.211%	-3.1	-9.6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41.8	45.1	49.3
	독일국채 10년물	3.471%	-1.2	-2.1
	호주국채 10년물	5.288%	-3.2	-11.1
				53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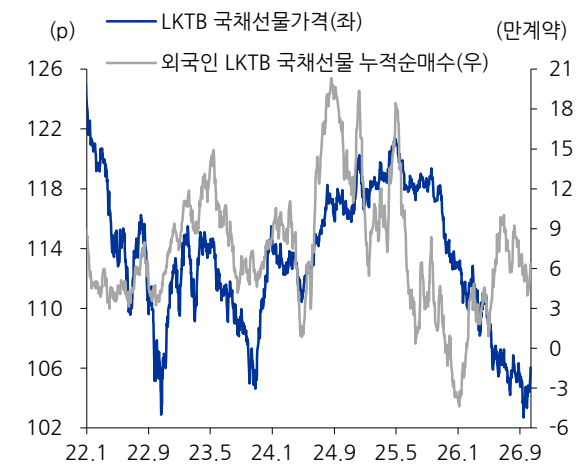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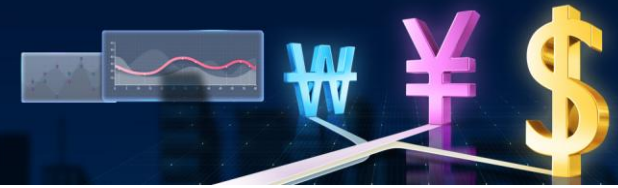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전구간 강세 지속. 주식시장 폭락에 따른 반사효과.
- 전일에 이어 AI 관련 의구심 등으로 국내 증시 급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음. 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으며 달러원 환율도 10원 이상 급등.
-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수도 이어졌음. 외국인, 3년 국채선물 14,312계약 순매수 및 10년 국채선물 2,996계약 순매수. 장중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향후 고금리를 언급했지만 영향력 제한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장기물 중심 소폭 강세 마감.
- 주식 부진에 따른 반사효과 영향이 컸음. 반도체 부진 및 JP모건체이스 실적 예상치 하회 등이 작용.
- 9월 물가 앞둔 경계와 유가 상승 등으로 금리 하락폭 일부 반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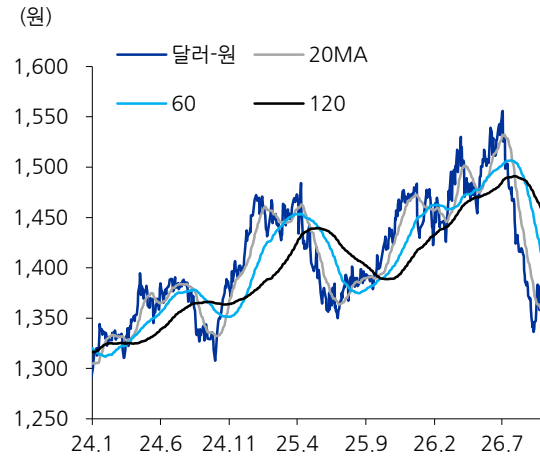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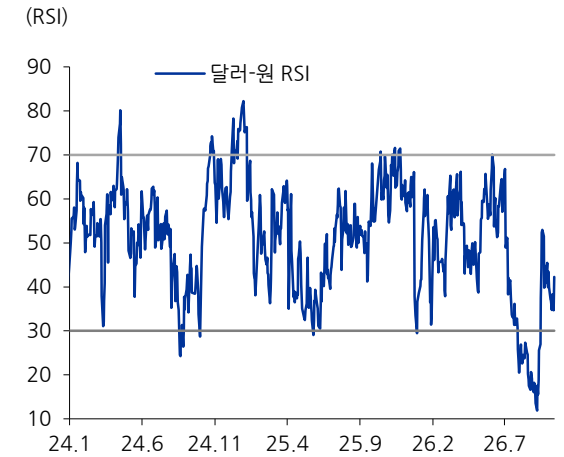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10/13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45.10	0.7%	0.1%	-6.5%
	달러지수	102.20	-0.4%	0.3%	4.0%
	달러/유로	1.12	0.4%	-0.5%	-4.7%
	위안/달러(역외)	6.69	0.0%	-0.1%	-4.2%
	엔/달러	158.36	-0.2%	0.2%	1.1%
	달러/파운드	1.33	0.3%	-0.2%	-1.6%
	헤알/달러	5.02	0.7%	0.9%	-9.0%
상품	WTI 근월물(\$)	94.14	0.4%	5.3%	63.9%
	금 현물(\$)	4,161.49	-0.2%	-0.1%	-3.6%
	비트코인(\$)	83,385	0.6%	-2.9%	-5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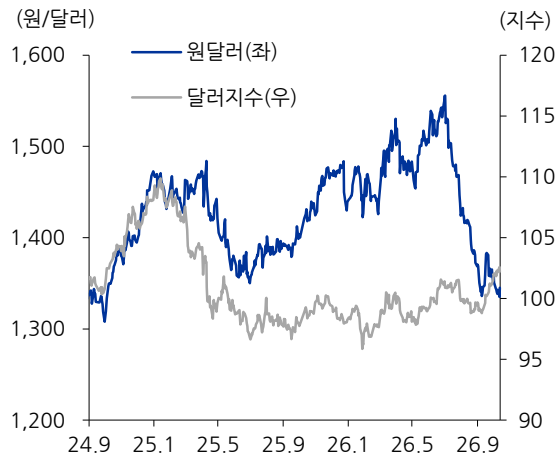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주식 매도에 +10.00원 상승한 1,345.10원에 마감(야간 1,341.50원).
-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날만 코스피를 4.5조원 순매도하며(5거래일 연속 총 13.1조원) 달러-원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. 원화는 아시아장 국제유가 하락과 달러 약세, 엔화 강세에도 하락함.
- 통화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달러 선물을 연중 최고 수준인 +9.9만 계약 순매수하며 원달러 상승을 지지.
- 달러-원은 연준 당국자들의 완화적 발언 속 야간거래에서 3.60원 하락. 최근 급격히 강해진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세가 잦아든다면, 수출기업 달러 매도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이 재차 높아질 전망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 발언에 하락(DXY -0.4%).
-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다면 내년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. 윌러 연준 이사는 국채금리 상승이 주담대, 자동차 대출 등 민간 차입비용 상승을 유발해 금융여건을 긴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함.
-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美 장기금리가 하락하며 달러는 약세. 유로화는 프랑스 정치 불안 지속에도 최근 하락 이후 되돌림 발생하며 상승.
- 금일 美 9월 CPI 발표 예정.